

# 간호학술지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석민현<sup>1</sup> · 장희정<sup>2</sup> · 박정숙<sup>3</sup> · 김혜원<sup>4</sup> · 서연옥<sup>5</sup> · 신현숙<sup>6</sup> · 양진향<sup>7</sup> · 정면숙<sup>8</sup> · 정명실<sup>9</sup>

<sup>1</sup>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sup>2</sup>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sup>3</sup>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up>4</sup>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5</sup>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6</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sup>7</sup>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8</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up>9</sup>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Accuracy of References in Eight Nursing Journals in Korea

Suk, Min-Hyun<sup>1</sup> · Jang, Hee-Jung<sup>2</sup> · Park, Jeong Sook<sup>3</sup> · Kim, Hae-Won<sup>4</sup> · Suh, Yeon-Ok<sup>5</sup>

Shin, Hyun-Sook<sup>6</sup> Yang, Jin-Hyang<sup>7</sup> · Jung, Myun-Sook<sup>8</sup> · Chung, Myung-Sill<sup>9</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ochon CHA University, Sungnam

<sup>2</sup>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up>3</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sup>4</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sup>5</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sup>6</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Hee University, Seoul

<sup>7</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sup>8</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sup>9</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ference accuracy in major nursing journals in Korea. **Methods:** The references in articles from eight nursing journals from 2006 were compared with PubMed for authors, year, title, journal, volume, and page accuracy. Four hundred sixty-six references were reviewed. Errors were classified as major or minor and categorized by bibliographic headings (author, title, journal, year, volume and page). **Results:** Of the 466 references, 223 (47.9%) had citation errors. The reference error rates ranged from 28.6% to 58.7%. Most errors occurred in the author element (37.9%), followed by title (20.9%), journal (19.0%), page (13.9%), volume (5.9%), and year (2.4%).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a considerable error rate in the references of nursing journals. Inaccuracy of references is a reflection on scholarly work of authors and journals. Authors and Editorial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references.

**Key words:** Reference, Accurac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문헌고찰은 연구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는 결과 해석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연구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를 얻게 되며, 충분한 문헌고찰을 통해 같은 연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론적 기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사정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연구 계획, 자료 수집 절차, 측정 도구 제작 혹은 선택 및 통계학적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Polit & Beck, 2004).

연구 과정에서 활용된 문헌은 본문에 표시될 뿐만 아니라, 목록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헌과 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학문 발전에 중요한 부분으

**주요어 :** 참고문헌, 정확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Hee-Jung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9 Hallymdachak-gil, Chuncheon 200-702, Korea

Tel: 82-33-248-2720 Fax: 82-33-251-7039 E-mail: hjang@hallym.ac.kr

투고일 : 2007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월 4일

로 인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정확도는 연구 과정이나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되며, 논문의 기틀이 되는 문헌을 연구자가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Oermann, Cummings, & Wilmes, 2001). 또한 출간된 학술지에 나타난 문헌의 정확도는 심사과정에 대한 신뢰와 출판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국내 간호연구는 대한간호학회가 1970년 12월 대한간호학회지 1권 1호를 발간한 이후 현재까지 논문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한국간호과학회의 분과 학회별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한간호학회지는 2004년 6월 펍메드(Pubmed) 등재가 결정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느 지역에서든 국내 간호연구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간호학술지의 발전은 국내 간호현장의 발전 및 간호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국내 간호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국내외 학술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국내 간호연구의 국제화, 국내 간호연구자와 해외연구자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발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학문평가가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간호학계도 경쟁적으로 많은 수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자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충분히 고찰하거나 연구의 진행을 수시로 점검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연구 결과를 완전히 출판하기 전에 또 다른 연구 과제를 중복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편집자 측면에서는 투고되는 논문의 수적인 증가는 논문심사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높였으며, 많은 수의 논문을 출판하는 각 학회의 경우 재정상의 이유로 전문 편집인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출판논문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몇 외국 학술지에서는 출판논문에서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자들에 대한 각성과 함께 학술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O'Connor, 2002; Oermann, et al., 2001; Schulmeister, 1998). 현 시점에서 국내 간호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연구자들의 문현고찰 깊이와 출판과정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술지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에 나타난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에 나타난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을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에 따라 분석한다.

셋째,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에 나타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에 따른 인용의 정확성을 항목별로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에 나타난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분석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간호과학회와 산하 분과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한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총 8종류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2006년 1년간 출판된 논문 전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논문마다 1개의 영문 국외 원저(original article)를 선정하였다.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원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양식이 다른 저서, 학위논문, 보고서, 학술회이나 심포지움 자료, 개인 서신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국외 학술지의 경우 펍메드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어 분석 대상 자료의 정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나, 국내 학술지는 학술지별 또는 연도별로 제한적으로 전산화되어있어 자료의 존재 유무와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출판된 논문은 총 480편이었으나 국외원저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논문 14편을 제외한 466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inchcliff, Bruce, Powers와 Kipp (1993)와 Tay-

lor (1998)의 기준을 근거로 Oermann 등(2001)이 제시한 기준 중 원저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적용하였다(Table 1).

이 분류 기준은 오류를 주요 인용오류(major citation error)와 미세 인용오류(minor citation error)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인용오류는 저자명이 빠졌거나 이름과 이니셜이 틀린 경우, 저자의 순서가 잘못된 경우, 논문의 제목이 틀린 경우(온라인에서 검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의미가 바뀔 수 있을 정도), 학술지명이 틀리거나 큰 오자가 있는 경우(예, psycholog-y-> psychiatry), 권, 연도가 틀리거나, 시작 페이지가 틀린 경우이며, 미세 인용오류에는 저자 이름에 사용되는 부호(dia-critical mark)가 잘못 사용된 경우, 제목에서 부분적인 오자나 부제목을 빠뜨린 경우, 시작 페이지 이외 페이지의 오류가 포함된다.

분석 기준을 선정한 뒤 연구자들은 2006년에 발간된 8종 학술지의 원본을 수집한 뒤 다음의 순서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학술지 목차에 있는 각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한 뒤, 각 참고문헌 목록에서 한 개의 원저를 선택하였다. 출판된 논문은 각각 30개 미만의 참고문헌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체계적 무작위추출법을 활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원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각 목차에서 선정된 연구 대상 문헌은 엑셀 파일에 제1 저자를 기록한 뒤, 펍메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색한 뒤, 저자,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페이지의 정확성 유무를 판정하였다.

셋째, 각 학술지별로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참고문헌 수와

오류가 포함된 문헌 수를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인용오류와 미세 인용오류별로, 참고문헌에 포함된 서지사항별로 오류수준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8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참고문헌 인용을 정확하게 한 논문의 비율은 52.1%였으며, 참고문헌에 오류가 발견된 논문의 비율은 평균 47.9%로 나타났다. 각 학술지별로 참고문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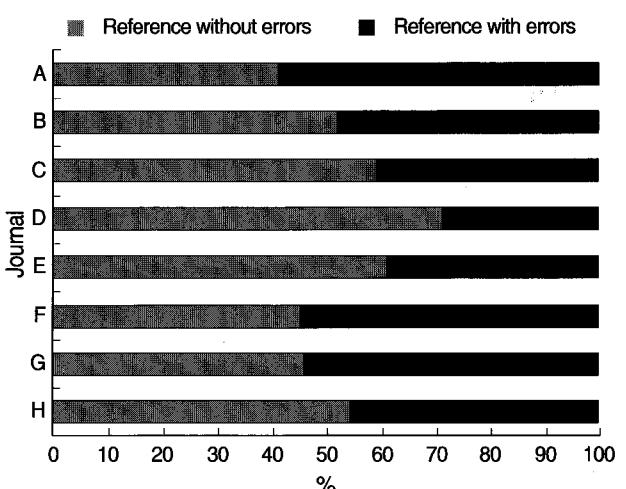


Figure 1. Reference with errors and without errors.

Table 1. Criteria of Analysis

Major citation errors		Minor citation errors	
Incorrect spelling of authors' names and initial, omission of author, incorrect order.		Incorrect use of diacritical marks in author name.	
Incorrect article title (prevent retrieval in an on-line)		Minor misspellings, omission of subtitles	
Incorrect journal name or major misspelling		Minor misspellings of journal name	
Incorrect year, volume		Page number errors other than the first page	
Incorrect first page number.			

Table 2. References with Errors and without Errors

Journal	Published references		Reviewed references		References without errors		References with errors	
	N	N	N	%	N	%	N	%
A	112	109	45	41.3	64	58.7		
B	52	52	27	51.9	25	48.1		
C	52	49	29	59.2	20	40.8		
D	36	35	25	71.4	10	28.6		
E	75	72	44	61.1	28	38.9		
F	46	44	20	45.5	24	54.5		
G	50	50	23	46.0	27	54.0		
H	57	55	30	54.5	25	45.5		
Total	480	466	243	52.1	223	47.9		

Table 3. The Number of References with Major and Minor Error among Reviewed References

Journal	No. of references reviewed	No. of major errors	No. of references with major errors (%)	No. of minor errors	No. of references with minor errors (%)
A	109	53	44 (40.4)	44	38 (34.9)
B	52	15	14 (26.9)	25	17 (32.7)
C	49	14	14 (28.6)	15	12 (24.5)
D	35	4	4 (11.4)	15	8 (22.9)
E	72	19	16 (22.2)	46	25 (34.7)
F	44	32	20 (45.5)	14	13 (29.5)
G	50	30	20 (40.0)	12	11 (22.0)
H	55	14	9 (16.4)	22	18 (32.7)
Total	466	181	141 (30.3)	193	142 (30.5)

Table 4. Errors according to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A	B	C	D	E	F	G	H	Total errors	%
Author	43	12	13	3	14	24	18	15	142	37.9
Title	28	6	9	4	10	8	7	6	78	20.9
Journal	7	10	6	7	22	6	6	7	71	19.0
Year	3	1	0	1	2	2	0	0	9	2.4
Vol.	4	2	0	2	7	1	3	3	22	5.9
Page	12	9	1	2	10	5	8	5	52	13.9
Total	97	40	29	19	65	46	42	36	374	100

의 정확성은 41.3%에서 71.4%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2, Figure 1).

## 2. 주요 인용오류와 미세 인용오류 수준

참고문헌 인용 오류를 주요 인용오류와 미세 인용오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한 개의 참고문헌에는 여러 개의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의 전 수를 산출한 후, 주요 인용오류와 미세 인용오류가 포함된 논문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참고문헌 466개 중 주요 인용오류는 181개, 주요 오류가 포함된 논문은 141개(30.3%)였으며, 미세 인용오류의 수는 193개, 미세 인용오류가 포함된 논문은 142개(30.5%)였다. 주요 인용오류가 있는 논문은 11.4%에서 45.5%였으며, 미세 인용오류가 있는 논문은 22.0%에서 34.9%로, 주요 인용오류의 범위가 더 넓었다.

## 3. 참고문헌 서지사항에 따른 오류 수

참고문헌 서지사항별 오류 수준을 살펴보면 총 374개의 오류 중 저자에 대한 오류가 142개(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논문제목 오류 78개(20.9%), 학술지명 오류 71개(19.0%), 페이지 오류 52개(13.9%), 권 오류 22개(5.9%),

연도 오류 9개(2.4%) 순이었다.

논문제목이나 학술지명의 경우에는 개념이 비슷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복수형 's'가 원저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학술지의 약어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자에 대한 오류는 저자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틀리게 쓰거나 빠뜨린 경우, 또는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니셜을 일부 빠뜨린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Wiseman, L. R' 을 'Wiseman, L.' 까지만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논문제목에 대한 오류는 용어의 일부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effects', 'nurses'에서 's'를 빠뜨렸거나, 'a' 'of' 와 같은 관사, 전치사를 빠뜨린 경우, 'elderly'를 'elder'로 혹은 'health promoting'을 'health promotion'으로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patient attitudes'를 'pain attitudes'로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논문의 제목이 길어질 때 부제목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페이지에 대한 오류도 52개로 13.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페이지가 70~74, 76으로 편집상 페이지가 일련번호가 아님에도 70~75로 임의로 페이지를 바꾸어 쓴 경우, 234~246인데 234~236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잘못 쓴 오류가 있었고 1569~1585인데 1585~1596로 시작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바꾸어 쓰면서 임의로 페이지를 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참고문헌은 중복으로 한 개의 오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른 오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논 의

출간된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은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한 후 표기를 얼마나 세심하게 하였는가 하는 꼼꼼함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자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연구 결과에까지 확대해석되어 그 연구의 신뢰성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용된 참고문헌이 정확해야 다른 연구자들에게 올바른 참고문헌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출판과정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 인용 중,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인 대한 간호학회지와 7개 분과학회지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오류가 있는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체 간호연구자들과 학술지들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간호학술지, 특히 아동간호 관련 주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Pediatric Nursing*,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의 참고문헌 오류율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4개 학술지가 1999년 9/10월에서 2000년 1/2월 사이에 발행한 논문에 포함된 전체 참고문헌 1,913개 중 190개가 표본추출률 10%, 무작위추출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분석되었다. 학술지 별로는 31개에서 79개의 참고문헌이 포함되었으며, 분석 결과 오류율은 최저 38%에서 최고 45.2%로 평균 41.6%였다(Oermann et al., 2001).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포되는 간호학술지 *Nursing Management*, *Image*와 RN은 무작위로 60개씩 180개의 참고문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58개인 32%의 오류가 있었다(Schulmeister, 1998). 생의학관련 국외 연구에서는 제시된 문헌인용의 오류는 대략 20~58%였는데(Gosling, Cameron, & Gibbons, 2004), 학술지의 참고문헌 오류율을 분석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50개 내지 60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Schulmeister, 1998). 본 연구에서는 466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간호학술지가 30개 미만의 참고문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체 참고문헌은 약 13,000개로 추정할 수 있어, 약 3.3%의 표본추출률을 제시할 수 있다. 학술지별로는 35개에서 109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는데, 이미 보고된 다른 논문의 결과와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의 참고문헌 인용 오류는 28.6%에서 58.7%로 평균 47.9%인 것으로 국외 주요 학술지의 오류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별로 오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주요 오류율에

있어서 각 학회지별 차이의 범위가 크다는 점은 국내 학술지 간에도 투고된 논문의 관리체계가 거시적으로는 과거보다 표준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시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요 오류율의 차이는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는 연구자의 꼼꼼함과 정확함에 대한 자세이며 이차적으로 편집인의 세심한 관심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한 출판 전문 인력 고용을 통해 이러한 오류율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학술지 내에서 주요 오류율이 비교적 낮은 학술지를 확인하고, 그 학술지의 참고문헌 관리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각 학술지가 오류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서지 사항의 형식을 제대로 준수했느냐만을 투고요령에 따라 보았을 뿐 그 참고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정확히 인용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은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나 편집인이 투고하거나 출판하기 전에 한번 더 그 정확성을 점검을 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면 저자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체 인용오류 중 저자와 관련된 인용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Schulmeister (1998), Oermann 등(2001), Aronsky, Ransom와 Robinson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저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이니셜이 다른 오류는 독자들이 참고문헌의 활용을 위해 논문을 검색할 때,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찾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인용오류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오류는 논문제목에 대한 오류였고 그 외 학술지명, 페이지, 권에 대한 오류가 많았고, 발행 연도 오류도 일부가 발견되었다.

출판된 논문에 제시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은 연구자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연구자들은 일차문헌을 충분히 고찰하고,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자신이 인용한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을 다양한 유형으로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료를 검색하고 채택하기를 원하는 문헌을 저장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문헌 인용에 있어 오류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간호사나 대학원생들에게도 일차인용과 이차인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교육하여 참고문헌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본의 잘못된 인용이 이차인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논문을 찾아 일차 인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술지 출판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출판담당자들도 이러한 오류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논문의 접수단계에서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된 문헌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한 후 심사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과학회가 출판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간호학회 분과학술지의 대부분은 논문접수에서 출판, 발행 등을 출판이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출판관련 인력 및 재정의 확대, 간호학회 및 분과학회의 전문학술지 인쇄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

한 학문영역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준은 그 학문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수준은 그 주제의 창의성, 연구 방법,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정확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되지만, 연구자에 대한 신뢰성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는 전체 논문의 기계적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오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간호학회지 및 분과학회지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 각 학술지의 출판 및 편집위원들의 노력이 매우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의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분석을 통하여 간호연구의 기반이 되는 문헌고찰을 연구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연구 과정 및 보고서 작성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출간되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6년 1년 동안 출판된 주요 간호학술지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논문마다 1개씩의 국외 원저를 선정하여 총 466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학술지는 대한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총 8종류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오류 분석을 위해 Hinchcliff 등(1993)과 Taylor (1998)의 문헌을 근거로 Oermann 등(2001)이 제시한 기준 중 원저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인용의 정확성을 주요 인용오류(major citation error)와 미세

인용오류(minor citation erro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참고문헌 서지사항 요소에 포함된 항목별로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의 참고문헌 인용오류는 28.6~58.7% (평균 47.9%)였다. 주요 오류는 30.3%, 미세 오류는 30.5%였으며, 참고문헌에 포함된 서지사항별 오류에서는 저자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 논문제목, 학술지명, 페이지, 학술지의 권(volume), 발행년도 등의 순으로 오류가 발견되었다.

참고문헌 인용의 오류는 학술지의 수준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 학술지 평가의 기준이 되고, 국내외 주요 검색사이트 등재 시 평가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로 되는 부분이다. 또한 참고문헌의 정확한 기술은 연구자가 얼마나 심도있게 일차문헌을 검토했는지와 세밀하게 논문을 작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며, 참고한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책임있는 태도와 함께 학술지의 출판과정에 대한 학회의 관심, 출판위원회의 체계적인 논문검증과정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연구는 각 분과학회지별로 연도별 추이를 비교 확인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며, 참고문헌 표기에 대한 정확성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안한다.

## REFERENCES

- Aronsky, D., Ransom, J., & Robinson, K. (2005). Accuracy of references in five biomedical informatics journals. *J Am Med Inform Assoc*, 12, 225-228.
- Gosling, C. M., Cameron, M., & Gibbons, P. F. (2004). Referencing and quotation accuracy in four manual therapy journals. *Man Ther*, 9(1), 36-40.
- Hinchcliff, K. W., Bruce, N. J., Powers, J. D., & Kipp, M. L. (1993). Accuracy of references and quotations in veterinary journals. *J Am Vet Med Assoc*, 202, 397-400.
- O'Connor, A. E. (2002). A review of the accuracy of references in the journal Emergency Medicine. *Emerg Med*, 14, 139-141.
- Oermann, M. H., Cummings, S. L., & Wilmes, N. A. (2001). Accuracy of references in four pediatric nursing journals. *J Pediatr Nurs*, 16, 263-268.
- Polit, D. E., & Beck, C. T. (2004). *Nursing research-principles and methods* (7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chulmeister, L. (1998). Quotation and reference accuracy of three nursing journals. *Image-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0, 143-146.
- Taylor, M. K. (1998). The practical effects of errors in reference lists in nursing research journals. *Nurs Res*, 47, 300-303.